

〈발제4〉

북한의 외국인 정책

김 정 재(대원외고 2학년)

이 태 용(대원외고 1학년)

I. 들어가며

국가가 다른 국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국가의 외국인들의 대우, 그리고 사업상에서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대우에 대한 조치가 곧 외국인정책이다. 국가에 속하는 기업들과 다른 국가 기업들과의 거래는 외국인 투자법 등에 속한다. 외국인 정책, 외국인투자법은 외교정책과도 연관되며 여러 국가들에서는 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국가들의 대우가 좋아지고 있으나, 반대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나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국민들이 사회여론에 따라 쫓아내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테러나 시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을 억압 혹은 퇴출시키도록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 국가가 그 법을 통해 외국인들을 직접적으로 감시 혹은 억압 시키는 것이 있고, 혹은 소련의 대한항공기 사건과 같이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행사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여러 정황들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등 문제가 생기자, 남한과 북한의 교류는 많이 침체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대표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사업 때문에 북한에 올라가 있었던 현대아산 직원 등 외부인들은 모두

쫓아내버렸다. 아무리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지만, 옛 박정희 대통령 서거 등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나 도시를 폐쇄하지 않았었다. 지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상의 차이,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와 외교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글은 과거와 현재의 북한 외교정책들을 살펴보고,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조사하며 앞으로의 개선점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북한의 정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위해 한국인으로서는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작성되었다. II장에서는 현재 북한의 외국인 거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북한이 해외 국가들마다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IV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할 점들과 차이점들을 부각하여 V장에서 북한의 외국인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외국인 거주 현황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는 바뀌고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다. 모두가 뭉치며 강하게 공산주의를 내세우던 50, 60년대와 달리 사람들의 결속력은 차츰 약해졌고, 결국 여러 세대를 걸쳐 체제의 존속조차 위협 받게 되었다. 때에 따라 국가의 사상이 수정되기도 하기에 시기에 따라 북한의 외국인 정책에서 시기를 과거, 현재로 나누어쓰게 되었다.

북한이 속한 공산주의의 경우 예부터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이 팽배해왔다. 북한민 외 민간인들은 북한에 출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가 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탈 주민의 경우 국가들에게 요청을 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처리했다. 북한의 행동은 시기와 지도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2개로 나뉘본다면 과거와 현재로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은 과거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사상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정책과 외국인정책을 책정하였고,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시기이기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체제의 위협을 받지 않았었다. 북한 일본인 납치사건이나, 요도호납치사건, 그리고 푸에블로호납치사건 등과 같이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행동으로 테러지원국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과거의 외국인들은 납치사건들의 피해자, 돌아오지 못한 6.25 참전자, 구소련군이나 공산주의 국가민들 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현재

22)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는 533명으로서, 전체 인구인 23349859명에 비해 턱무니하게 없다. 테러지원국이라고 불렸던 것과, 스스로 폐쇄적인 구조를 띤 결과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북한으로서는 다른 국가들에게 요청할 수 없었고,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제 없기 때문에, 국가사상이 다른 곳에 요청하고 있었다.

외국인 기업들이 자신의 나라에 투자하도록,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북한은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법의 내용이 그러한 대우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²³⁾

제 3 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자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하지만 19조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들이나, 개성공단에 놓은 시설들에 대해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몰수한 사실이 있고,

22) 5살나이집단별, 성별, 민족별 인구수, 통계청, 2008

23) 외국인 투자법, 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얼마 전에는 최우방국인 중국의 기업에게 조차 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89%의 수출의존을 하고 있는 최대 투자국인 중국은 2억 4천만 위안을 잃은 것을 계기²⁴⁾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최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당시 중국 후진타오 총리가 법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당부했다고 한다.²⁵⁾

III. 국가별 차이점

국가마다 우호국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적대국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하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교류가 더욱 증대할 것이고, 국가 간 친밀도가 높아지며 계속 우호적으로 지내며 도움을 준다. 경제적인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교류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 수익을 얻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며, 시장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가지기에 서로에게 필연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기에 원만한 국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는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정책이나 대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의 경우에는 개국시기부터 현재까지 공산주의 진영과 우호적인 관계였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외국인 자체의 출입국이 많지 않아 외국인 정책 자체가 뚜렷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적에 따라 그 대우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중국은 북한의 최고 우방국이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인접해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의 외교 원칙인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정치적 지지는 북한의 존속에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인들과의 관계에 어느 나라보다 조심스럽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인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사업가들에 대해서도 대개 협조적이다. 실제로 중국과의 국경 쪽의 경제특수구역을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에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중국에게 양도하였고,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 그 경영권을 중국인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24) '중국 기업 '북한에 투자했다 '쭈박', 미국의 소리(VOA), 2012-08-12,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CC=AZ&C_IDX=46519>

25) 장성택의 중국 방문 성과와 과제/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2012-08-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2030002>>

사업가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교들에게도 비교적 조금 더 자유로운 상권을 보장해주고 사회에서 여러 특권을 준다.

하지만 화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11년 화교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본인

북한은 6.25 이후로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외교 노선을 펼쳐왔기 때문에 일본과 원칙적으로 수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북한의 계속적인 일본인 납치사건이 밝혀지면서 더욱 악화된다. 북한 정부가 일본인들을 납치한 이유가 주로 일본어 교육과 남한 잠입을 위해 이루어졌던 만큼,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크게 우호적인 대우를 제공하진 않았다. 물론 다른 납북 일본인들과 함께 가혹한 대우를 받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북이후 긴 시간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 정부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그렇듯, 필요에 의해 납북된 일본인에 대해선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우대하였다. 그 예로 <김정일의 요리사>로 유명한 후지모토가 있는데, 그는 초밥 요리사로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며 호화롭게 살았다.

성 명 (납치 당시 나이, 실종장소)	납치일시 및 사건	북한 측 주장	비 고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 [13세, 니가타현(新潟県)]	1977년 11월 15일 소녀 납치용의사건	· 1994년 4월, 자살 - 북한에 딸 김혜경 생존 - 2006년 4월, 일본 정부는 유골 DNA 검사 결과, 1978년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 남편 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2004년 11월, 북한측이 유골 전달
다구치 아에코(田口八重子) (22세, 불명)	1978년 6월경 리은혜 납치용의사안	· 1984년, 하라 다다야키(原 晃)와 결혼 · 1986년, 하라 병사(病死)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	김현희 사건과 관련된 '리은혜' 와 동일인물로 추정
*치무라 야스시(地村保志) [23세, 후쿠이현(福井県)] *치무라 후키에(地村 保志) [23세, 후쿠이현(福井県)]	1978년 7월 7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2002년 10월, 일본 귀국	2004년 5월, 딸 1명, 아들 2명 일본 귀국
*하스이케 가오루(蓮池 薫) [20세, 니가타현(新潟県)] *하스이케 유키코(蓮池裕木子) [22세, 니가타현(新潟県)]	1978년 7월 31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2002년 10월, 일본 귀국	2004년 5월, 딸 1명, 아들 1명 일본 귀국

*소가 히토미(曾我 ひとみ) [19세, 니가타현(新潟県)]	1978년 8월 12일 모녀 납치용의사안	· 2002년 10월 일본 귀국	2004년 7월, 남편 찰스 로버트 젠킨스(Charles Robert Jenkins)와 딸 2명 일본 입국
소가 미요시(曾我 ひとみ) [46세, 니가타현(新潟県)]		· 북한 측은 입국 부인	
이시카와 슈이치(石川 秀一) [23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1978년 8월 12일 아베크 납치용의사안	· 1979년 7월, 마스모토 루미코(増元 るみこ)와 결혼 · 1979년 9월, 심장마비로 사망	
마스모토 루미코(増元 るみこ) [24세,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1979년 7월, 이시카와 슈이치(石川 秀一)와 결혼 ·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	
이시오카 도오루(石岡 亨) (22세, 유럽)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사안	·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	
마쓰키 가오루(石岡 亨) (26세, 유럽)		· 1996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	2004년 11월, 북한측이 유골 전달
아리모토 게이코(有本 恵子) (23세, 유럽)	1983년 7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사안	· 1988년 11월, 가스사고로 사망	요도호(淀号) 납치범의 전(前) 부인이 납치에 관여, 동사건 관련, 일본 측은 2002년 9월 요도호 납치범 '우오모토 다미코(魚本 民子)' 를 국제수배
하라 다다야키(原 晁) [43세, 미야자키현(宮崎県)]	1980년 6월 중순경 신광수 사건	· 1984년, 다구치 아에코(田口八重子)와 결혼 · 1986년, 간경변으로 사망	북한공작원 신광수가 한국 당국에 하라 납치를 인정하는 증언 실시
구메 유타카(久米 裕) [52세, 이시카와현(石川県)]	1977년 9월 19일 우시쓰(宇出津) 사건	· 북한 측은 입국 부인	
마쓰모토 교코(松本 京子) [29세, 돗토리현(鳥取県)]	1977년 10월 돗토리현 여성실종사안	· 북한 측은 입국 부인	2006년 11월,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추가 인정
다나카 미노루(田中 實) [28세, 효고현(兵庫県)]	1978년 6월경 전(前) 음식점 종업원 납치용의 사안	· 북한 측은 입국 부인	2005년 4월,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추가 인정

미국인

북한에게 미국은 경제적 원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나라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이다. 그렇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정책은 ‘체제의 선전과 유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에서 거주하였던 미국인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 탈영병들이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이자 적대시하는 미국의 국민들이 납북하자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해서 북한에 입국했다고 알리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북한은 이들에게 많은 특혜를 제공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거주지를 제공했다. 미국 국민에 대해 가혹 행위가 밝혀질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불이익이 클 수도 있을뿐더러 미군들의 활용 용도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젠킨슨 씨의 책 “The Reluctant Communist”에 따르면 북한에서 어구를 수선하는 일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며 북한 정부는 강제 납북된 일본인 소가 히토미와의 결혼 생활도 허용해 주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북한과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관계이다. 때론 가까웠을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외교를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선 중국인들만큼 대접해 주지 않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존속’의 수단으로 삼는다.

가장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방북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북한의 정치 체제에 지지를 표명하는 일부 단체나 개인의 무단방북이었다. 북한은 이들을 ‘동지’로 여겨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남한에 비해 북한의 체제가 더 우월함을 선전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일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선 가혹한 심문과 감금을 행하고 있는데, 대개 탈북자를 돕기 위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들은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었다. 근래에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납북 자체가 매우 적어졌지만 이러한 외국인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IV.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국인정책

구소련

구소련 해체 국가들

쿠바

쿠바는 현재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로 1959년 이후부터 사회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쿠바는 1980년 카터 대통령과의 외교적 화해 전까지 북한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특히 1964년 대 쿠바 경제봉쇄강화조치 이후로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 대 이후 미국과의 수차례의 협상 이후로 외교적으로 점점 개방되기 시작했고, 미국과의 관계는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이후 자본주

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 전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특히 쿠바의 관광산업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수도인 아바나를 포함해 쿠바 대부분의 도시가 거의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에 쿠바 관광객이 1백만 명을 넘었고 올해도 전년도 대비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V. 북한의 외국인 정책의 시사점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북한은 아직껏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외국인 정책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순수하게 이념의 대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체제의 존속을 위해 북한 국민들을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결과인 만큼 외국인의 입북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체제의 폐쇄성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쿠바나 중국의 경우 개방의 결과로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된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훨씬 가속화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국인 정책이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 외국 문물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나타내는 점으로 볼 때, 외국인 정책이 북한의 개방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금강산의 폐쇄가 남한과의 관계의 반사적 효과로 일어났다는 점과 중국에 대한 지속적 개방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398&mobile&categoryId=200000234#>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